

생태계 위기와 종말론적 상상력

김옥동

영혼 없이 시간은 존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사람은 플라톤과 함께 흔히 서양 학문의 아버지로 일컫는 옛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영혼과 육체라든지 시간과 공간이라면 몰라도 언뜻 영혼과 시간 사이에는 이렇다 할 만한 관련이 없어 보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더 꼼꼼히 따져보면 이 둘 사이에는 깊은 함수 관계가 있음이 밝혀진다. 시간의 존재를 깨닫는 것도 영혼이요, 그 흐름을 의식하는 것도 영혼이다. 더구나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시간에 일정한 매듭을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영혼은 시간과는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시간을 분과 초 단위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시와 날짜 단위로 나눈다. 하루는 다시 한 달로, 한 달은 또다시 1년과 10년 그리고 한 세기로 이어진다. 이렇듯 시간이란 어디까지나 인간의 영혼이 임의로 정해놓은 일방적인 단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혼 없는 육체를 상상할 수 없듯이 영혼 없는 시간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훑어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한 세기가 끝날 때마다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낀다. 정확히 백 년을 단위로 하여 이 지구가 마침내 파국을 맞이할는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종말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바로 흔히 '세기말'이라고 일컫는 현상이다.¹⁾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종말 의식은 그 역사가 꽤 오래이다.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로 종말을 예고한 사상은 기원전 1500년경에 창시된 조로아스터교였다. 이렇게 근동 역사에서 시작한 종말 의식은 유대 역사를 거쳐 초기 기독교와 중세 및 근대 기독교 역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역사에 걸쳐 아주 폭넓게 나타난다. 옛 그리스의 도시 쿠마이에 살면서 예언집 『시블레의 책』을 펴냈다는 무당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 지구의 종말을 점치곤 하였다. 예를 들어 기원 후 195년, 948년, 1000년, 1588년, 1878년 따위는 지금까지 못 예언가들이 예측한 지구 종말의 대표적인 해로 꼽힌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서력 기원 후 1000년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중세 신학의 교부(敎父) 성(聖)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해에 신약 성서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물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고 말았지만 이해는 서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로 남아 있다. 그로부터 또다시 1천 년이 흘러 2000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1천 년 전과 꼭 마찬가지로 종말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보다 앞서 16세기 프랑스의 의사요 점성학자인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종말의 시기로 예언한 1999년 7월(또는 8월)을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건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느 달처럼 그냥 지나가버렸다. 오히려 지구촌은 지금 새 천년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적잖이 들떠 있다.

그러나 종말의 묵시록은 아직도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그 음산한 그림자

1) '세기말 fin de siecle'이라 하면 19세기 말엽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 무렵 서유럽을 중심으로 도파주의, 극단적인 심미주의, 피로감, 절망감 등이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용어는 문학이나 예술과 관련하여 말할 때에는 프랑스의 퇴폐주의 시인들이 일으킨 예술 운동과 영국에서 시작한 심미주의 운동을 가리킨다.

를 드리우고 있다. 흔히 '밀레니엄 광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지구촌에 널리 퍼져 있다. 에이즈, 청소년들의 총기 난사 사건, 부쩍 잦아진 지진 발생, 2000년 컴퓨터 연도 인식 오류인 Y2K를 종말론의 근거로 예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UFO의 존재와 출현을 믿는 것도, 뉴 에이지 운동도 종말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00년은 1000년과 마찬가지로 백 년의 끝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천 년의 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 세기가 끝나는 지점이요 한 밀레니엄이 끝나는 지점인 탓에 종말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고개를 쳐들고 있다. 최근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사람의 18퍼센트가 자신의 일생 중에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만 종말론에 관한 웹사이트가 무려 239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나라가 이렇게 종말론에 들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뜻밖이다.

이러한 종말 의식이 물 건너편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좁은 소견이다. 종말론에 대한 관심은 동양에서도 서양에 못지않다. 예를 들어 1994년에 일본 열도를 깜짝 놀라게 한 '옴' 진리교는 종말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다미선교회도 종말론에 깊이 빠져 있는 신도들의 모임이다. 19세기 말엽 서학(西學)에 맞서 후천 개벽을 부르짖으며 나타난 동학(東學)도 어찌 보면 종말론과 그다지 멀지 않다. 미륵의 도래를 굳게 믿고 있는 증산교도 종말론적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1

세기말 특유의 종말 의식은 실제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상상에서 나온 허구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사막의 신기루처럼 일중

의 착시 현상이다. 프랑스의 역사가 앙리 포시용은 『천년』(1952)이라는 책에서 한 세기를 끝내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종말 의식이 실제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느끼는 실존적 불안과 희망을 역사 속에 투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구가 종말을 고하리라는 생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순간순간마다 종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가르쳤다. 영국의 비평가 프랭크 커모드가 종말을 ‘즉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재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말장난의 묘미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즉발적 imminent’이라는 말과 ‘내재적 immanent’이라는 영어는 모음 하나 차이로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²⁾ 영국의 역사가 로빈 콜링우드도 ‘역사’와 ‘종말론’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모든 순간에는 종말론적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잠자고 있다”는 독일의 실존주의 신학자 루돌프 칼 볼트만의 말도, “산다는 것은 위기 속에서 산다는 것을 뜻한다”는 칼 야스퍼스의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종말에 대한 공포를 개인적 죽음을 가리키는 비유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종말 의식은 어디까지나 일직선적 시간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는 법이다. 일직선적 시간관은 내세의 구원을 강조하는 기독교나, 이상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마르크스주의가 받아들이는 시간관이다. 성서는 「창세기」(“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으로 끝을 맺는다.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론적 근거

2) 이 점에 대해서는 Frank Kermode, *The Sense of an Ending: Studies in the Theory of Fi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 6 참조.

로 받아들이는 마르크스주의에서도 계급 투쟁에서 시작하여 계급 없는 사회로 끝난다. 이렇게 목적론적 역사관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늘 일직선적 시간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 의식은 옛 그리스 시대나 동양의 순환론적 시간관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시간이 화살처럼 앞으로 진행되는 일직선적 시간관에서의와는 달리 순환론적 시간관에서 시간은 둥그런 원을 그리며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이러한 시간관에서는 일직선적 시간관에서의처럼 발전이나 진보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삶에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법도 없다.

그렇다면 세기말에 느끼는 종말 의식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프랭크 커모드는 『종말 의식』(1967)에서 크게 다섯 가지 특성을 지적한다. 1) 공포, 2) 데카당스, 3) 사제적 회의주의, 4) 왕국의 건설, 5) 역사적 전환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³⁾ 첫째, 세기말에는 온갖 질병과 전쟁 그리고 천재 이변 같은 큰 재앙이 일어나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만 보아도 쉽게 미루어 볼 수 있다. 인류 공멸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볼트만이 말하는 '종말론적 절망'을 깊이 깨닫게 마련이다.

둘째, 세기말에는 퇴폐주의가 부쩍 기승을 부린다. 퇴폐주의는 19세기 말엽 10여 년에 걸쳐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한바탕 휩쓸고 간 데카당스 운동에서 잘 드러난다. 이 무렵 적지 않은 문학가들이나 예술가들은 예술에서뿐만 아니라 도덕과 사회 제도에서도 낡은 전통과 인습의 굴레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예술이 자연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가장 훌륭한 아름다움이란 다름아닌 쇠락과 죽음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퇴폐주의는 향락주의나 염세주의에 그치지 않고 흔히 새로운 혁신과 희망을 전제로 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비록 유토피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3) 이 점에 대해서는 앞의 책, pp. 93~124 참조.

하였지만 무정부주의와 공상적 사회주의가 큰 관심을 모은 것도 바로 이 무렵의 일이다.

셋째, 사제적 회의주의에 따르면 지구 종말의 날짜를 정확히 예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찍이 서력 기원 후 954년에 수도승 아드소는 지구 종말은 결코 예측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적이 있다. 지구 종말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의 시기를 짐쳤지만 제대로 맞춘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을 정확히 예언하는 행위를 두고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사정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종말론은 이렇게 어느 누구도 그 날짜를 알아맞힐 수 없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넷째, 왕국의 건설은 사제적 회의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어떤 형태이건 왕국을 건설한 뒤에야 비로소 종말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19세기 말엽 영국과 독일에서 제국주의의 신화가 부쩍 큰 관심을 끈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주의도,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즘도 종말 의식과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종말 의식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지금 천년 왕국설은 더욱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섯째, 종말을 맞기에 앞서 종말과 그 이전 사이에 일종의 역사적 전환기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P.A. 소로킨이 『위기 시대의 사회 철학』(1952)에서 20세기는 '가장 심각한 위기의 시대'요 새로운 문화로 바뀌는 '파국적 전환기'라고 밝혔다. 이 점을 떠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역사적 전환기는 세번째 특징인 사제적 회의주의와 마찬가지로 종말 의식과는 직접적으로는 별다른 관련이 없음이 드러난다. 그것들은 종말 의식의 한 특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역사적 시기나 종말 의식에 대한 태도로 보는 편이 훨씬 더 옳을 듯하다.

그렇다면 지구는 과연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 그 종말의 방법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가령 17세기 영국 런던의 카르 투지오회 수도원의 원장 토머스 버넷은 대홍수가 지구를 휩쓸고 지나간 뒤 지구는 마침내 뜨거운 화염에 휩싸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예언을 믿고 있다. 구약 성서 시대에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 것처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대홍수가 일어나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예언이 들어맞는다면 인류는 말하자면 이제 제2의 노아의 홍수로 멸망을 맞이하는 셈이다.

한편 영국의 문인 윌리엄 휘스톤은 지구 멸망의 원인을 혜성의 충돌에서 찾았다. 물론 그의 이론은 이 무렵 영국의 천문학자요 수학자인 에드먼드 핼리가 핼리 혜성의 궤도를 계산한 데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외부의 힘에 의하여 지구가 멸망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면서도 지구 멸망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버넷은 지구가 불로써 파국을 맞이한 뒤 지구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오직 천국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버넷과는 달리 휘스톤은 지구 종말은 한낱 지상의 죄악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예비 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지구가 멸망한 뒤에는 지상에 유토피아가 도래한다고 지적한다.

천체의 운행에 따른 지구 멸망은 물에 따른 멸망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 예언에서는 좀더 과학적인 냄새가 풍기기 때문이다. 가령 2000년 5월을 종말의 시기로 보았던 사람들은 이른바 '진주 목걸이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바로 이때가 되면 수성-금성-지구-화성-목성-토성이 일렬로 서며, 행성 간의 인력 작용으로 거센 파도와 허리케인 그리고 화산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1999년 1월에 처음 발견된

소행성 '1999AN10'이 2039년이 되면 지구와 충돌하여 수백만 명이 몰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학자도 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무게가 무려 200만 톤이나 되는 이 소행성은 현재 지구촌을 위협하는 123개에 이르는 소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전한다.

한편 원자 폭탄에 의한 지구 멸망도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일본 나가사키(長崎)와 히로시마(廣島)의 원자 폭탄 투하하는 원자탄의 위력이 얼마나 가공한지를 실감나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헝가리 출신의 영국 작가 아서 케슬러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서력 기원으로 삼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자탄을 처음 투하한 1945년을 인류 역사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원폭 투하 사건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뇌리 속에는 악몽으로 남아 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핵무기는 이제 지구를 몇백 번 파괴하고도 남을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끔찍스런 핵무기가 지금 세계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옛 소련에 설치되어 있는 핵무기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한다. 옛 소련이 붕괴한 뒤 민족 단위의 국가로 나뉘어지면서 핵무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만약 테러 집단이 핵무기를 손에 넣거나 정치적 이념이나 갈등으로 지퍼진 불씨가 핵무기로 옮겨 붙으면 그 피해는 건잡을 수 없다.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956년 영국의 콜더홀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있어왔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아주 적지만 한번 발생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나 소련의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언제 대형 사고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종말 의식은 그 동안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하여 이른바 ‘종말론적 문학’ 또는 ‘묵시론적 문학’이라는 독특한 문학 장르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본디 종말론적 문학이란 정경과 외경을 통틀어 종말론을 다루는 성서 문학을 일컫는 용어였다. 구약 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 성서의 「요한계시록」은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종말론적 문학이다.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고 씌어진 「다니엘서」는 이 세계의 파국과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처음 밝힌 책이다. 기원 후 1세기 말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와 아마겟돈 그리고 천년 왕국의 개념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기독교는 세계 멸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내건 맨 첫번째 종교가 되었다. 종말론적 문학은 인간 역사를 폭넓게 파악한다든지, 종말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지구의 종말을 예언한다든지, 최후의 심판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모호하고 불가해한 상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느 다른 문학과는 크게 다르다. 이 문학은 기원전 200년과 기원 후 150년 사이에 유대교와 기독교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좀더 넓은 뜻에서 종말론적 문학이라고 하면 성서 문학보다는 세속 문학을 일컫는 것이 보통이다. 세속적인 종말론적 문학은 종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종말론적 문학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말론적 요소를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으면 일단 종말론적 문학으로 범주화한다. 다시 말해서 주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구성·이미지·상징, 또는 분위기나 어조 따위가 종말론적 문학을 규정 짓는 기준이 된다. 심지어 커모드 같은 이론가는 좁게는 소설의 결말, 넓게는 소설의 구조를 종말론과 관련 지어 논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누보로망 작가 알랭 로브그리에의 『지우개』(1953)

와 『미로에서』(1959) 같은 작품을 이러한 측면에서 다룬다. 이 점과 관련하여 키모드는 “로보그리예의 누보로망의 경우 패러다임과 텍스트 사이의 관련성에 어느 정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한다”⁴⁾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텍스트’란 두말할 나위 없이 문학 작품을 가리키고, ‘패러다임’이란 문학 작품이 여전히 삶의 실재를 재현하거나 표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킨다.

종말론적 문학은 우리 시인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경림의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핵에 따른 종말 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작품으로 꼽을 만하다. 1978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기 시작한 한반도는 1999년 12월 현재 핵 발전소를 무려 16기나 가지고 있어 세계 9위의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만큼 핵에 따른 위험도 크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좋았던 시절의 얘기다
지금 지구는 언제 폭발해 저 자신을
젯더미로 만들지 모를 핵으로 가득 차 있다
산산조각으로 바스러릴 핵으로 가득 차 있다
핵은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서
우리들의 발밑에서 우리들의 등 뒤에서
죽음의 입김을 서서히 내뿜으면서
그 음험한 눈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
보라 삼천리 그 가운데서도 남쪽 반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도 많은 핵 발전이
돈이 덜 든다는 그럴듯한 구실 아래
곳곳에 도사려 우리를 집어삼킬

4) 앞의 책, p. 23.

채비를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영광 고리에서 올진 월성에서
 단숨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죽음의 재로 덮을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지구는 죽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땅 내 나라는 이제 단숨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버릴
 마침내 그 벼랑에까지 와서 서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종말론적 세계관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목을 찬찬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에서 ‘썩어만’이라는 말과 ‘아니다’라는 말이 그 세계관을 여는 열쇠이다. 남의 나라 말도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말에서도 ‘만’이라는 조사가 부정어와 결합하면 독특한 뉘앙스를 자아낸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는 썩어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드러내는 표현이다. 마지막 행 “마침내 그 벼랑에까지 와서 서 있다”라는 구절을 보면 인류는 이제 종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듯하다. 지구는 언제 폭발할는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온갖 오염 물질로 땅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 놀랄 것도 없다. 첫 행의 “그러나 그것도 이미 좋았던 시절의 얘기다”라는 구절을 보면 차라리 땅이 썩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문제는 한반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핵 발전소가 이 땅 전체를 “산산조각으로 바썬” 버리고 “잿더미로 만들지” 모른다는 데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반도가 “단숨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버릴”는지도 모른다. 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비교한다면 땅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인은 핵의 위협이 가히 전방위적이라고 밝힌다.

“핵은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서/우리들의 발밑에서 우리들의 등 뒤에서/죽음의 입김을 서서히 내뿜으면서”라는 구절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민족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신경림은 이 작품에서 핵 발전소의 위협을 사나운 맹수에 빗대고 있다. “그 음험한 눈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느니 “우리를 집어삼킬/채비를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느니 하는 구절이 바로 그러하다. 자칫 추상적일 수 있는 핵 발전의 위협이 맹수라는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직접 피부에 와 닿는다. 원시 시대에 인간을 위협하던 존재가 맹수였다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것은 핵이다. 더구나 맹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종말론적 세계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인이 말하는 ‘이 땅’이나 ‘내 나라’는 비단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한반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제유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시인은 ‘이 땅’이나 ‘내 나라’라는 말과 함께 ‘지구’라는 말을 섞어 쓰고 있다. ‘내 땅’이나 ‘내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형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에서이다. 말하자면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지금 핵 위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핵에 의한 종말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최계선도 마찬가지이다. 「제왕(帝王)도마뱀」에서 그는 핵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제왕도마뱀은 지구를 항상 위협했다. 길이는 15미터이고 신장은 거의 6미터에 가까운, 크고 힘 있는 거물로, 3개의 발가락에 날카로운 발톱을 끼고 15센티미터나 되는 송곳니로 아가리를 무장하고 다녔다. 제왕도마뱀으로서 지구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구만 계속 있어준다면.

세균 없는 빙하기의 시대

멸종의 현장에는
부패도, 해체도 없었다
뒤덮인 얼음의 고요 속에서
죽어서 죽은 줄도 모르는 시체들이
크게 눈을 뜨고
빙하기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다
계속

제왕(帝王)은 나를 항상 위협했다. [……] 제왕으로서는 내 머리 위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만 계속 있어준다면.

세균 없는 재의 시대
멸종의 현장에는
부패도, 해체도 없었다
뒤덮인 재의 고요 속에서
죽어서 재 된 줄도 모르는 망령들이
크게 눈을 뜨고
재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다
계속,
이변이 없는 한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대조법을 효과적으로 구사한
다는 점이다. 이 시는 모두 네 연으로 되어 있지만 제왕도마뱀과 관련한
두 연과 핵과 관련한 두 연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런데 앞 두 연
은 뒤의 두 연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예를 들어 '지구'는 '나,' '제왕도
마뱀'은 '핵,' '빙하기 시대'는 '재의 시대,' '뒤덮인 얼음'은 '뒤덮인 재,'
'죽은 줄도 모르는'은 '재 된 줄도 모르는,' 그리고 '시체들'은 '망령들'

과 각각 짝을 이룬다. 나머지 구절들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같다. 다만 뒤의 두 연에는 '계속'이라는 행 다음에 "이번이 없는 한"이라는 구절이 덧붙여 있을 따름이다.

공룡의 한 종류인 제왕도마뱀은 한때 그야말로 제왕처럼 지구를 누비던 동물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멸종되었다. "지구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 동물이 멸종한 것은 갑자기 빙하기가 몰아닥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⁵⁾ 빙하기 무렵에 제왕도마뱀이 왕으로 군림하였다면 20세기 현대에는 핵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제왕은 나를 항상 위협했다"라는 구절에서 잘 드러나듯이 핵은 늘 인간을 위협하는 가공할 만한 존재이다. 제왕도마뱀에게 지구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핵에게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인간이 지구 상에 계속 살아남아 있느냐 하는 것뿐이다.

핵과 관련한 뒷부분에서 시인이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핵에 의한 인류의 멸종을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과거 사실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경림이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에서 "지금 지구는 언제 폭발해 저 자신을/잿더미로 만들지 모를 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구절과 비교해보면 곧 알 수 있다. 최계선은 아예 "죽어서 재 된 줄도 모르는 망령들이/크게 눈뜨고/재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다"고 과거 시제로 말한다.

5) 최근 고생물학자들은 공룡 같은 대형 동물이 지구 상에서 사라진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는다. 지금까지는 1만 2천 년 전에 일어난 갑작스런 기후 변화 탓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리처드 리키와 로저 르윈은 대형 동물이 멸종한 것은 어떤 짐승보다도 잔인하고 난폭한 육식 동물이 갑자기 지구 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잔인하고 난폭한 육식 동물이란 다름아닌 인간을 가리킨다. 인간이 지구 상에 출현하면서 대형 동물이 멸종을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홍적세 과잉 학살'이라고 부른다. 이 점에 대해서는 Richard Leakey and Roger Lewin, *The Sixth Extinction: Patterns of Life and the Future of Humankind*(New York: Anchor Books, 1996) 참조.

핵보다도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지구 종말의 원인으로는 역시 환경 파괴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생태학자들은 지구 상의 생물을 위협하는 환경 파괴에서 지구 종말의 원인을 찾는다. 화학 비료와 농약은 토양만 파괴시킬 뿐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땅에 살고 있는 생물을 죽이고 심지어는 공기까지 오염시켰다. 삶의 터전이라고 할 소중한 땅은 자본 집약적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영농 방법으로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온 탓에 공기는 더럽혀졌고, 온갖 생활 오수와 공장 폐수로 물은 오염되었다.

특히 염화불화탄소(CFC)에 따른 오존층 파괴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남극 성층권에 뚫린 것으로 처음 관측된 오존층은 날이 갈수록 그 크기가 커질뿐더러 지금은 북극 성층권에서도 관측할 수 있다. 오존층은 외계에서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막의 구실을 한다. 그런데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면서 유해 광선이 지상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지상의 생물체는 크나큰 피해를 입는다. 오존층의 오존량이 10퍼센트가 줄어들면 지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20퍼센트 늘어나고 피부암 발생률이 무려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자외선은 식물의 엽록체는 물론이고 해양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문재의 「오존 묵시록」은 바로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오존층의 파괴에서 그는 묵시록적 종말론을 읽는다.

오존 강 말라서, 오존 강은 갈라져서
아 우리들 살던 옛집 푸른 지구
막무가내로 무너진다

하늘로 쏘아 올린 화살 벼락처럼
 내려온다 불의 비, 질타의
 장대비, 섭리의
 쇠뿔 같은 비, 거침없이 퍼부어진다
 모두 잠긴다 떠내려가는 것
 아무것도 없다 지구에서 쏘아 올린
 화살과, 바다로 흘러보낸 뜰것들로
 가득하고 가득하고 가득하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이미 늦은 것
 오존 강 건너
 목시록의 붉은 글자들, 우리가 별이라고 믿었던
 빛들이 붉은 피를 떨군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이미 목시록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오존 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척 흥미롭다. 오존층은 생명체의 생장을 돕는다는 점에서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 강의 물이 말라 강바닥이 갈라져 있다. “아 우리들 살던 옛집 푸른 지구/막무가내로 무너진다”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강물이 모두 말라버렸다는 것은 지구 상의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생태학을 가리키는 ‘에콜로지아oekologia’라는 그리스어는 본디 집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을 지닌다. 지구는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다. 그 주거 공간인 집이 지금 ‘막무가내로’ 허물어지고 있다. 시인이 ‘옛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지구는 이제 생물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모든 생명체의 “옛집 푸른 지구”가 이렇게 폐허가 된 것은 바로 인간 때

문이다. “하늘로 쏘아 올린 화살 벼락처럼”이니 “지구에서 쏘아 올린/화살과”이니 하는 구절은 이 점을 뒷받침한다. 지구에서 하늘로 쏘아 올린 화살이란 그 동안 인간이 대기 속에 마구 쏟아버린 유해 물질을 가리킨다. 흔히 프레온 가스라고 부르는 염화불화탄소는 그 동안 산업체에서 여러 용도로 쓰여왔다. 정밀 기계 부품의 세정제를 비롯하여 헤어 로션 같은 스프레이 제품의 분사 추진제나 단열재로 쓰이는 발포제 따위를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는 염화불화탄소 말고도 소화기 충전 가스로 사용하는 할론, 용매로 많이 쓰는 사염화탄소, 곡류 저장용 훈증제로 사용하는 메틸브로마이드 따위도 있다. 1985년에 채택한 비엔나 협약과 그 협약을 좀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이 규제되었지만 오존층의 구멍은 날이 갈수록 넓어만 간다.

이 작품에서 색깔 이미지도 눈길을 끈다. 생명체가 평화롭게 살던 옛날의 지구는 ‘푸른’ 색이었다. 푸른색은 다름아닌 생명의 색깔이다. 천상병은 「청녹색」이라는 작품에서 “하늘도 푸르고/바다도 푸르고/산의 나무들도 녹색이고/하나님은 청녹색을/좋아하시는가 보다” 하고 읊은 적이 있다. 푸른색이나 녹색은 이제 환경 운동이나 자연 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색깔이 되다시피 하였다. ‘녹색 연합’이나 독일의 ‘녹색당’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색깔이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붉은 피’로 뒤덮여 있을 뿐이다. 푸른색이 생명의 색깔이라면 붉은색은 회색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색깔이다.

그런데 문제는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데 있다. ‘오존 묵시록’이라는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지금 인류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 시인이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는 일종의 웨언법(贅言法)이나 항진(恒眞) 명제를 쓰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벌써 “오존 강 건너/묵시록의 굵은 글자들”이 보인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오존 강 건너”라는 구절은 바로 “며칠 후 며칠 후 요단

강 건너 만나리”라는 찬송가에 나오는 요단 강을 떠올리게 한다. 요단 강은 그리스 신화의 스틱스 강처럼 현세와 내세를 가르는 삼도천(三途川)을 뜻한다. 이제 인류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늙었다고 생각될 때 이미 묵시록은/시작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맨 마지막 구절에는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다.

오존층 파괴를 비롯한 온갖 환경 재앙으로 이제 지구는 생물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세계의 동식물을 연구하는 국제 기구인 세계보존연합(WCU)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지난 5백 년 동안 816종이 지구 상에서 완전히 멸종하였거나 동물원에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줄잡아 1만 1046종의 동식물이 지구 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포유동물은 4종 가운데 1종, 조류는 8종 가운데 1종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언뜻 생물이 지구 상에 사라지는 것과 인간의 삶 사이에 이렇다 할 만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생태계는 마치 그물이나 고리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이나 개체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종이나 개체도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의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나머지 부분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5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동식물의 멸종률과 비교한다면 인류의 멸종률은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곳곳에서 벌써 그 조짐이 엿보인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가 하면 기상 이변 같은 예기치 못한 재앙에 시달리기도 한다. 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 호르몬 등으로 인간의 생식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인화의 「순서 2」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맺고 있는 관계를 잘 보여준다.

아카시아, 감나무도 이젠 다 죽었어
그 다음엔, 그 다음엔 말이야
허허, 공해 채소, 공해 고기 먹는
바로 우리들의 순서가 온 거여
죽어도, 죽어도 이주 않을 우릴
잡아먹을 순서가 온 거여
사실 기다리고 기다렸어
이놈우 막판이 오길 버르고 별렀어
암, 세상 뒤집혀질 순서가 오고 만 것이지

나무 가운데에서도 아카시아는 생명력이 강하기로 이름난 나무이다. 몇 십 년 전 산림 녹화 사업을 하면서 벌거숭이산을 푸르게 하기 위하여 심은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나무이다. 아카시아나무 덕분에 겉모습은 벌거숭이 신세를 면하였지만 실제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아카시아나무가 뿌리를 뺏어가는 바람에 다른 나무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아카시아나무도 공해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공해로 죽어가는 감나무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렇게 아카시아나무와 감나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죽어갈 차례이다. 마침내 온갖 공해가 인간을 “잡아먹을 순서”가 온 것이다. “허허 (……) 바로 우리들의 순서가 온 거여”라는 구절에서는 허탈감마저 감돈다. “이놈우 막판이 오길 버르고 별렀어”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은 미리 예고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인화의 작품과 비교해 볼 때 최승호의 「호린 날」은 훨씬 더 묵시록적이다.

나는 황혼기의 별 버스 정거장에 서 있었다
 흐린 날이었던가
 구멍 난 오존층에서 죽음의 햇빛이 쏟아지며
 사막 아닌 땅이 벌건 사막으로 변해갔다
 흐린 날이었던가
 나는 대감옥 안의 버스 정거장에 서 있었다
 멀리서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나며
 빈 드럼통이 굴러오고 있었다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나고 있었다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빈 드럼통에서 나고 있었다
 아니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빈 드럼통과 아스팔트를 껴안고
 일시에 울부짖고 싶던 날이었던가
 바퀴들이 맹렬하게 소용돌이쳤으나 뜻이 없었고
 욕망의 들뜬 기둥들이 치솟았으나
 폐허 될 형무소 붉은 담장 안에 있었다
 죄수들의 얼굴
 그 뒤로 간수들이, 사형 집행관이 따라가던
 흐린 날이었던가
 나는 황혼기의 별 버스 정거장에 서 있었다
 나는 대감옥 안의 버스 정거장에 서 있었다

 언젠가는 나 없는 버스 정거장에
 키 큰 바다풀이 서 있으리

최승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구가 “황혼기의 별”이라고 말한다. 서산 마루로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는 저녁 해처럼 지구도 이제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말이다.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가 살고 있다는 유일한 행성이라고 할 바로 그 지구마저도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불모의 땅으로 변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듯하다. 그것은 “구멍 난 오존층에서 죽음의 햇빛이 쏟아지며/사막 아닌 땅이 벌건 사막으로 변해갔다”는 셋째와 넷째 행에서 잘 드러난다. 시인은 이번에는 지구를 거대한 ‘감옥’에 빗댄다. 인간은 이제 한낱 “폐허 될 형무소 붉은 담장” 안에 갇혀 있는 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머지않아 다 같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간수나 사형 집행인은 죄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죄수는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간수나 사형 집행인은 감옥 밖에서 살고 있지만 “대감옥”이요 “폐허 될 형무소”에는 안과 밖이 따로 없이 하나같이 감옥일 뿐이다.

멀리서 천둥 소리를 내며 굴러오는 드럼통 소리는 모르긴 몰라도 거대한 문명의 소리일 것이다. 여기에서 드럼통은 작게는 트럭 같은 자동차를 가리키지만 좀더 크게는 산업의 원동력을 가리킨다. 빈 드럼통이 구르는 아스팔트도 문명의 상징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인들이 이 반생명의 상징으로 사용해온 아스팔트는 석유와 자동차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바퀴’와 ‘욕망’이라는 낱말을 찬찬히 눈여겨보아야 한다. 인간의 문명은 바퀴를 처음 발견하면서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바퀴가 문명이라는 수레를 돌리는 외적 동력이었다면, 인간의 욕망은 그 수레를 돌리는 내적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인류가 힘들여 쌓아온 그 문명이 바로 인류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르릉거리는 소리가/빈 드럼통과 아스팔트를 꺾안고/일시에 울부짖고 싶던 날이었던가”라는 구절은 이를 뒷받침한다.

날씨가 흐린 날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비극적 종말을 앞둔 인류 전체의 슬픈 자화상이다. 민요의 후렴처럼 거듭 되풀이하는 “흐린

날이었던가”라는 구절은 이러한 비극적 종말에 한층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종말론적 세계관은 마지막 연의 두 행 “언젠가는 나 없는 버스 정거장에/키 큰 바다풀이 서 있으리”에서도 잘 드러난다. 시인은 인간이 모두 사라진 텅 빈 지구에는 공해에 질긴 바다풀만이 무성하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종말론적 상상력은 이승하의 「생명체에 관하여」에 이르러 그야말로 찬란한 빛을 내뿜는다. 이 작품에서 그는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고 개탄한다.

1

모태 속에서 세상 소식 모른 채
나날이 자라난 도모코는 생명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죽어가는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새벽을 맞는 어머니의 눈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2

한때는 수억 마리 번식했으나
멸종하고 만 생명체들
곧 멸종할 생명체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우리가 살릴 수도 있는
낙엽이 지는 숲속에서
늦가을 들판에서
새끼를 낳는 그 생명체의 눈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살릴 수도 있었던

3

내가 태어나기 전에 멸종한 생명체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 있을 때 멸종한 생명체가 무엇인지

내가 죽은 후에 멸종할 생명체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네 내가 아는 것은

종말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

인간도 언젠가는 멸종하리라는 것

그 슬한 생명체들을 멸종시킨 죄로

지구는 도는데 나는 사라지고 없으리

지구는 도는데 나는 무덤 속에 누워 있으리

지구는 도는데 나는 흙먼지가 되어 날리고 있으리

언젠가는 반드시

이승하는 한국 시인으로서 보기 드물게 활자 언어와 시각 이미지를 결합하여 독특한 효과를 자아낸다. 그는 시집에 즐겨 시와 함께 사진이나 그림을 곁들여 싣는다. 이 작품의 첫번째 연에는 1971년에 사진 작가 W. 유진과 에일린 스미스가 촬영하여 『라이프』지(誌)에 발표한 「도모코를 목욕시키고 있는 어머니」라는 사진 작품이 실려 있다. 한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고 불구가 된 딸을 안고 목욕시키는 모습을 찍은 이 사진은 발표되자마자 세계적으로 큰 관심으로 모은 작품이다. 공해병을 말할 때 마다 이 사진은 약방의 감초처럼 늘 등장한다.

이 사진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첫 연은 공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뒤 불과 몇십 년 안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만 공해라는 아주 값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의 눈부신 경제 발전 뒤에는 중금속 오염에서 생긴 ‘미나마타병’이나 ‘이타이이타이병’ 같은 공해병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미나마타병이 유기 수은 때문에 생기는 공해병이라면, 이타이이타이병은 카드뮴 중독 때문에 생기는 공해병이다. 이 두 병은 흔히 가장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일컫는다.

도모코가 앓고 있는 병은 1953년에 일본 남단 구마모토(熊本) 현의 작은 어촌인 미나마타(水俣) 마을에서 처음 발견된 공해병이다. 중추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뇌성마비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이 병은 그것이 처음 발견된 마을 이름을 따서 ‘미나마타병’이라고 부른다. 신니폰(新日本) 질소 공장에서 배출한 수은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공장에서 배출한 메틸 수은이 함유된 폐수가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그 수은은 바다 속의 미생물에 의하여 무기 수은보다 훨씬 독성이 강한 유기 수은이 되었다. 바닷물 속의 유기 수은이 어패류를 오염시켰고, 그것을 오랫동안 먹어 온 그 마을 사람들 몸에 축적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물고기·체내의 수은 농도는 바닷물의 수은 농도보다 무려 8만 배까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먹이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면 갈수록 오염 물질의 체내 농축이 심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먹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버티고 서 있는 인간은 가장 농축된 오염 물질을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금속의 피해가 오염 물질을 섭취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임산부의 태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모태 속에서 세상 소식 모른 채/나날이 자라난 도모코는 생명체”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도모코는 이미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중금속에 오염되었음에 틀림없다. 먹이 피라미드로 보자면 그는 어머니 위에 놓여 있다. 어머니 배속에서 세상 모르고 자라난 그 생명체가 지금 미나마타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승하는 극적 효과를 자아내기 위하여 첫 연에서 반어법과 수사적 의문을 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라느니 “새벽을 맞는 어머니의

눈은/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라느니 하는 구절이 바로 그러하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첫 구절은 구약 성서 「창세기」를 패러디한 것이다. 하나님은 옛새에 걸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였고,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1장 31절)라고 적혀 있다. 시인은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는 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에 빗댄다. 그러나 그 피조물을 바라보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태어나자마자 공해병에 시달리는 도모코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 안타까웠을 것이다. 첫째 구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둘째 구절에서도 자식의 머리맡에서 임종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아름답기는커녕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생명체에 관하여」의 둘째 연에는 태평양 솔로몬 군도에 서식하는 빅토리아 비단나비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다. 온갖 공해로 지금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매스컴에서 떠들던 바로 그 나비이다. 시인은 한때는 수억 마리씩 알을 낳아 번식하던 그 빅토리아 비단나비가 이제 지구 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첫 연에서와 마찬가지로 둘째 연에서도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생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앞으로 숲속이나 들판에서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어미 나비의 눈은 생각만 하여도 끔찍스럽다. 후손을 잇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비단나비는 도모코의 어머니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살릴 수도 있었던”이라는 구절을 두 번씩이나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그 아쉬움이 무척 큰 듯하다.

셋째 연은 비록 사진을 싣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 오염과 공해에 대한 시인의 비판은 앞의 두 연보다 훨씬 더 날카롭다. 인간이 자연을 짓밟고 황금의 생명 고리를 끊어버린 그 결과가 과연 어떠한지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첫째 연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진술하고 둘째 연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다면, 셋째 연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진술한다. 시인이 비교적 길이가 긴 이 작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바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에 이르는 시간의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승하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나 살아 있을 때 멸종하였거나 죽은 뒤에 멸종할 생물체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밝힌다. 빅토리아 비단나비는 아주 작은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만 무려 130여 종의 생물이 지구 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지구 상에서 모든 생물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시인은 이미 멸종하였거나 앞으로 멸종할 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힌다. 그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종말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인간도 언젠가는 멸종하리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승하는 파격적이라고 할 행갈이를 사용한 다. “나는 모르네 내가 아는 것은”의 구절이 바로 그러하다. 시행을 바꾸는 데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모르네”라는 구절과 “내가 아는 것은”이라는 구절을 한 시행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례를 벗어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시인은 일부러 이 구절을 두 행으로 나누지 않고 한 행으로 처리해버린다. 인간의 종말과 멸종은 바로 지구 상에서 “그 숯한 생명체들을 멸종시킨 죄” 때문이다. 앞으로 그 죄값을 톡 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동안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다.

이승하의 종말론적 세계관은 맨 마지막 연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지구는 도는데 나는 사라지고 없으리”라는 구절에서 그는 처음으로 ‘지구’라는 말을 언급한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되풀이하는 “지구는 도는데”라는 구절은 마치 주문과 같아서 최면 효과를 자아낸다. 지구란 바로 무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생물이 살고 있는 집이다. 그런데 그 지구는 이문재가 「오존 묵시록」에서 말하는 “우리들 살던 옛집 푸른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아무런 생명체가 없이 혼자서 돌고 있다. 그냥 ‘돌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겉돌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움을 것 같다. 인간을 비롯하여 아무런 생물체가 살고 있지 않은 지구는 생각만 하여도 끔찍스럽다. 여기에서 ‘나’는 화자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가리키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라는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인간의 멸종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멸종을 예언한다는 점에서 고흥렬의 「지구묘(墓)」는 이승하의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두 시는 언어와 이미지 그리고 주제에서 여러모로 비슷한 데가 많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들이 일어날 때의 시간인데도
 산의 그늘만이 길게 뻗쳐 있다
 햇빛이 해골의 눈 속을 통과하여
 바람이 불고 오늘은 눈이 내린다
 지구는 혼자 외로이 겨울을
 빠져나가면서 공중에 떠 있을 뿐
 인류는 모두 어디에 갔는가
 빈 지구만이 태양을 돌면서 또
 움직이는 우주를 따라가는 은하
 그 은하계를 따라 사라져간다
 지구는 모든 조상의 묘를 싣고
 밤과 낮을 끊임없이 통과하리라

이 작품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극히 객관적인 진술로 시작한다. 신 중심의 중세 세계관을 뿌리째 뒤흔들어놓은 이 진술 때문에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까지 받았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말한 그 지구는 시

인이 이 작품에서 말하는 지구와는 사뭇 다르다. 이 지구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이다.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올라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인데도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는 이 지구에서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해골이 뒹굴고 있을 뿐 인류는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이다. 지구라는 행성은 이제 '혼자 외로이' 공중에 떠 은하계를 따라 움직일 따름이다. "햇빛이 해골의 눈 속을 통과하여/바람이 불고 오늘은 눈이 내린다"라는 구절에서는 을씨년스럽다 못하여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이 작품에서 무덤의 이미지를 찬찬히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승하와 마찬가지로 고흥렬도 지구를 거대한 무덤으로 본다. 이승하는 "지구는 도는데 나는 무덤 속에 누워 있으리"라고 말하는 반면, 고흥렬은 "지구는 모든 조상의 묘를 싣고/밤과 낮을 끊임없이 통과하리라"라고 말한다. 무덤은 해골과 함께 인간의 파멸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다름아닌 무덤이다. 시인이 바람이 휘몰아치는 한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은 것도 죽음과 파멸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인간에게 죽음과 파멸의 한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언뜻 인간이 모두 사라져버린 지구는 다른 생물이나 무생물에게는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실제로 적지 않은 생태학자나 환경론자들은 만약 인간이 이 지구 상에서 사라지면 다른 생물들이나 무생물은 살아가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생물 위에 군림하여 "그 술한 생명체들을 멸종시킨" 장본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생물이 살지 않거나 무생물이 없는 지구가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이 살지 않는 지구도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도 생태계를 이루는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제왕도마뱀이나 비단나비가 없는 지구가 쓸쓸하듯이 인간이 없는 지구도 그만큼 쓸쓸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옥동(1998).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 (2000). 『한국의 녹색 문학』, 문예출판사.
- (2001). 『시인은 숲을 지킨다』, 범우사.
- Bateson, Gregory(1972). *Steps to an Ecology of Mind*. New York: Ballantine.
- Gifford, Terry(1995). *Green Voices: Understanding Contemporary Nature Poet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Glotfelty, Cherryll, and Harold Fromm, eds.(1996). *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Kermode, Frank (1967). *The Sense of an Ending: Studies in the Theory of Fi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roeber, Karl (1994). *Ecological Literary Criticism: Romantic Imagining and the Ecology of Min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akey, Richard, and Roger Lewin (1996). *The Sixth Extinction: Patterns of Life and the Future of Mankind*. New York: Anchor Books.
- Worster, Donald(1977). *Nature's Economy: A History of Ecological Ide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cological Crisis and Eschatological Imagination

Wook-Dong Kim

This article attempts to investigate ecological and/or environmental crises in terms of eschatological outlook.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within the next hundred years human beings will probably experience climatic conditions in which no human has ever lived before, it argues that in order to survive the eco-catastrophe drastic changes should be made in our way of thinking as well as our way of living. This article treats itself with some environmental discourses in general and what has been called “green” poetry in particular. It discusses how some contemporary Korean poets have responded to environmental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not only in the Korean peninsular but in the global village as well. Works of such poets as Kyung-Rim Shin, Seung-Ho Choi, Moon-Jae Lee, Seung-Ha Lee will be discussed. This attempt will pave the way for establishing a new literary genre that may be somewhat loosely termed “eschatological literature.”

열쇳어: 종말론적 문학, 생태주의, 녹색시, 환경 담론, 생태비평.